

# ASSISTED SUICIDE TASK FORCE

## 조력자살 연구위원회

### 요약 보고서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2023 년 총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모든 형태의 조력자살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보고서”(2023 년 총회 회의록, p. 981)이다. 조력자살 연구위원회에 제기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적 조력을 받는 자살이 점점 더 널리 시행되고 승인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은 이를 성경의 가르침, 의료적 상황 그리고 실천적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본 보고서는 기독교 신학과 목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보다는 고통받는 이들, 장애인,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완화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적 조력자살(medically assisted suicide)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 생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본질적이며 지속적인 가치와 존엄을 부여하셨다. 이러한 생명의 소중함은 나이, 장애, 질병, 사고 혹은 기형으로 인해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이나 능력, 건강, 부와 같은 외적인 기준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세속적 관점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고통은 인간 삶의 일부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깊은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성경은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롬 5:3-4). 그러나 고통을 일부러 추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인류 역사 속 많은 이들이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존재적 두려움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를 종종 소홀히 해왔음을 인정한다. 야고보서 1 장 27 절은 우리에게 사회로부터 외면받거나 멸시받는 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힘쓰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지지와 돌봄이 있더라도 고통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중요한 대응 방식 중 하나는,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애통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깨어진 현실을 애통해 한다. 그러나 이 애통 가운데서도 깊은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피어날 수 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 73:26). 이러한 애통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

현재 캐나다 전역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료적 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현 의료 시스템 안에서 완화의료와 조력자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조력자살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참조). 완화의료는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의료적 조력자살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고통받는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잃고, 존엄성을 상실하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력자살을 고려하게 된다.

완화의료는 환자의 안위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다루는 전문성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개인적, 정서적, 영적인 부분을 돌보며, 고통을 야기하는 통증, 호흡곤란, 구토, 배뇨·배변 문제, 무기력, 식욕 상실 등의 육체적인 부분을 관리한다.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경우,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 수술 시 마취하는 것처럼 의식을 제거)'을 사용할 수 있다. 오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조력자살은 고통으로 인해 극심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에게 의료진이 직접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안락사)하거나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조력자살)하여 속히 죽음에 이르게 해 고통을 끝내게 한다.

치료 가능성 없이 고통이 점차 심해지는 질병의 경우, 환자는 생명 연장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의학적 의사결정 관련 정보는 부록 C 참조).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는 쉽게 치료 중단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성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받드시 받을 의무가 없으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명 치료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스스로 음식과 물 섭취를 중단하는 경우와, 임종이 임박하여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의료적 조력자살은 임박한 죽음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트랙 2' 조항에 따라,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조력자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경시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율이 높은 사회에서 교회는 장애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는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물리적, 재정적, 기술적 장벽 등 공동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의료적 조력자살은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새로운 사역의 현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다. 영적 돌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생사의 경계에 선 이들과 함께 걸어간다. 이때 심방과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 전해지는 '함께하는 힘'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부록 B에는 임종자를 방문하는 평신도를 위한 제안이 담겨 있다). 우리는 사랑과 애통 그리고 예배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함께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이들을 긍휼함으로 섬기며 **보호**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

끝으로, 오늘날 의료적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을 곁에서 돌보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팎에 존재한다. 우리가 진행한 설문조사와 목회자 토론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는 누군가가 조력자살을 고려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으며, 조력자살 이후 장례 절차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조력자살은 슬프고 비극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을 굳게 붙든다(롬 8:38-39). 또한 조력자살을 선택한 이들을 돌본 사람들 역시 깊은 도덕적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그들에게도 돌봄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의료적 조력자살은 현재 북미 전역에서 접근 가능하며 승인되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에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통에 대한 최선의 의학적 대응은 **완화의료**이고, 교회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4, 16)라는 말씀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본다.